

농림부

조류인플루엔자 예보 발령

농림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북방철새의 국내 도래시기(10월말)에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10월 14일 조류인플루엔자 예보를 발령했다.

농림부는 방사하는 오리나 토종닭 등이 직접 철새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농가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사육하는 닭·오리가 갑자기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신고전화 1588-4060, 1588-9060)토록 당부했다.

특히 축산단체·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국가의 여행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한 때에는 신발을 세척·소독한 후 귀가할 것과 야생조수류가 폐사된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정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방송보도 협조 요청

조류인플루엔자 언론 보도와 관련 일부 방송사의 경우 그동안 사용해 왔던 '조류독감'이란 표현을 공식명칭인 '조류인플루엔자'로 바꾸어 부르면서 닭·오리고기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장면의 보도를 자제해주고 있으나,

아직도 '조류독감'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KBS, MBC, SBS, YTN, MBN 등 언론에 외국의 발생사실을 보도하면서 국내 닭고기·오리고기 판매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인용하는 사례, 동남아지역 등 외국에서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채 닭·오리를 살처분·매몰하거나 수거하는 장면, 닭·오리 농장에서 소독약을 닭·오리에 직접 살포하는 방역장면, 가설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 등의 방송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국내는 조류인플루엔자 안전지대이며, '03/'04년 국내 발생당시 철저한 차단 방역 조치로 단 한건의 인체감염 사례도 없었다는 사실과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닭고기·오리고기·계란은 안전하므로 먹어도 조류인플루엔자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의 방송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조류독감'이라는 표현을 공식명칭인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약칭 AI)'로 사용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영국산 조류 수입자제 홍보 요청

최근 영국에서는 수입 검역 중인 조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농림부에서는 주한 영국 대사관에 동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과, 사실 일 경우 감염원인 및 영국내 확산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농림부에서는 영국 정부에게 외신보도 사실이 정확하게 규명될 때까지 우리나라로 살아 있는 조류의 수출선적을 자제하고 조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하여 줄 것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해 관련 단체에게 영국산 조류의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에게 동 기간 동안 수입을 하지 않도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시달했다.

야외 사육 닭·오리 등 방역관리 철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방 철새의 도래 시기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야외에서 사육하는 닭·오리 등에 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이와 관련해서 농림부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접촉 가능성이 있는 닭·오리 등의 야외 사육이 중단될 수 있도록 대농가 지도를 강화해 줄 것과 아울러 재래시장에서 불법적 도계행위가 근절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전국 시·도와 관련 단체에 시달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인플루엔자의 분야별 전문가 초청 '전문가 협의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10월 28일 검역원 소회의실에서 '05/'06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관련, 환경운동연합, 한국생태연구소 등 관련 NGO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교수 4명), 관련 단체 그리고 검역원

관련부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동남아시아·유럽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FAO·WHO 등 국제기구로부터 철새를 통한 전파 경고와 함께 국내에서도 철새도래 시기를 맞아 현재 추진 중인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과정 설명, 철새의 전파 가능성·방역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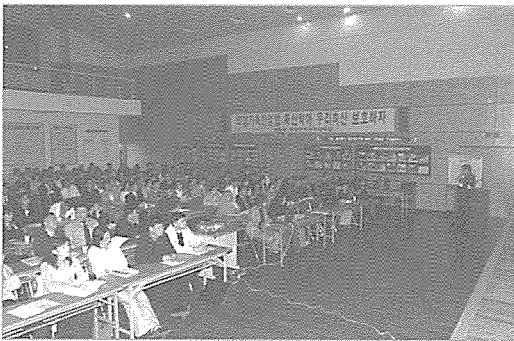
특히, 환경운동연합 등 NGO와 함께 철새와 가축방역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의가 진행되어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기회와 함께, 각 분야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등 성공적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조의 필

요성을 공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학계 전문가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가능성이 높은 철새와의 접촉 차단이 가장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세부적인 방역대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국경검역은 물론 국내방역을 강화하면서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축산물위생제도개선 분과위원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0월 20일 검역원 소회의실에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위생제도개선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축산물위생제도개선 분과위원회는 이무하 교수(서울대)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위생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주요 개정안 및 ‘축산물의표시기준’, ‘축산물의 가공기준및성분규격’ 등 축산물 위생관련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한 설명과 함께 관련 현안에 대한 활기찬 토론이 진행되었다.

현재 개정추진 중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주요 개정사항인 도축·가공·유통 단계에 도입되어 있는 HACCP 제도의 가축사육단계까지 확대 방안, 비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닭·오리고기의 포장 유통 의무화 방안, 효율적인 도축검사를 위한 도축검사의 내실화 및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미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위원들의 구체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최근 업계 및 식품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는 기능성축산물 및 유기축산물에 대한 바람직한 표시·광고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기능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으면서 업계의 신제품 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관련기관과 업계, 소비자단체간에 긴밀하게 업무를 공조키로 했다.

이번 분과위원회를 통해 위원들은 축산물위생·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보다 건설적인 축산물위생관련 제도 개선과 신뢰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 안심정책을 위해 위생·방역을 연계하여 축산물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서해의 오지 ‘덕적도’에서 방역 활동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에 걸쳐 오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를 방문하여 가축 질병 관련 기술지원과 방역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검역원 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검역원 병리과와 인천지원 검역2과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검역원 병리과 관계자는 “덕적도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가축 질병 진단이나 방역기술의 보급이 육지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므로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지역의 양축농가에게 검역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전문 기술을 제공하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관하여 홍보하기 위해 덕적도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검역원 직원들은 윤장희 덕적면장의 덕적면 축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역원이 수행하는 가축방역, 검역, 연구업무 등을 소개했다.

한편 서포 2리에 위치한 간척지의 인공저수지에 철새가 출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히 면장, 해당 공무원에게 최근 문제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근 축산 농가나 마을 주민들이 이들 철새에 접촉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닭이나 오리 등이 폐사되거나 평소와 달리 이상 증상을 보이면 즉시 검역원이나 인근 시험소 등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촌진흥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총력 지도

농촌진흥청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태국, 베트남,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이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에서도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이 우려되어 전염병의 발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닭·오리 사육 농가의 현황을 파악하여 전염병 예방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가축관리 상태의 주기적인 점검과 정밀예찰을 통하여 조류인플루엔자를 예

방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번에 발생한 지역과 북방철새의 도래지역인 천수만 등의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현장 방문예찰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농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철새도래지 방문과 태국, 베트남 등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함은 물론 농장에 철새나 야생조수 등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고 농장 종사자는 인근농장 방문 등 야외 활동 후에는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

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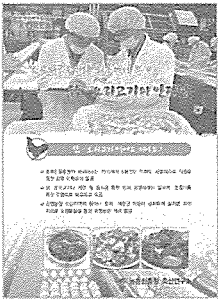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양축농가 교육과 리후렛, VCD,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와 농장 정밀 예찰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연구소

조류인플루엔자 홍보자료 제작·배포



플루엔자를 통해서 본 닭·오리의 안전성' 리후렛을 제작·배포했다.

■ 자료문의 : (041)580-6703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지난 10월 14일자로 발령된 조류인플루엔자 예보 발령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조류인

산·연간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연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연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축산관련 단체장 20명과 축산연구소 과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축산연구소 소장의 간단한 업무보고와 축종별 담당 과장이 추진 중인 업무를 소개하고 사전에 각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했다.

이후 단체장과의 토론에서 각 단체가 축산연구소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대한양계협회 김선웅 부회장은 현재 축산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언론의 각종 과잉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관리 지침이나 양계산물 조리방식을 연구기관에서 분명히 정리하여 홍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축산연구소에서는 이날 각 단체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2006년 신규과제 설계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사업은 그 내용을 강화하여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향후 추진키로 했다.

'축산관련 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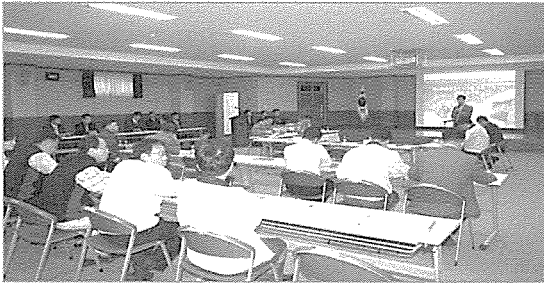


축산연구소는 지난 10월 21일 농촌진흥청의 축산분야 연구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대안적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축산물등급판정소

2005년도 현장연구조사 최종발표회 개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지난 10월 26일 대회의실에서 축산물등급판정 현장연구조사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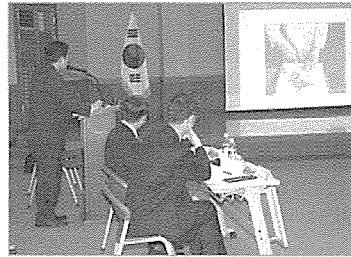
전국 10개 지소 11개 연구조사반에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4대 축산물(소, 돼지, 닭고기 및 계란)의 등급판정 관련 연구조사한 발표회 심사 결과 최우수상(1)은 전북지소의 '닭도체 각 호수별 등급별 부위별 수율조사' 우수상(3)은 강원지소의 '도체상태에서 돼지의 성(性) 구별에 관한 연구', 대전충남지소의 '파각란 출현율 감소방안' 및 부산경남지소의 '돼지 탕박도체의 등급별 부위별 정육율 조사'로 선정되었다.

동 연구조사는 200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데 매년 내용 및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동 연구조사 자료 중 우수작은 관련 학회지 및 전문지에 게재하고 등급판정기준 및 요령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대학교 최양일 교수와 축산연구소 안중남 과장 등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심사를 했으며, 우수작은 12월 경영혁신대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축산물종합정보시스템 보완 구축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지난 10월 21일 축산물종합정보시스템 보완

구축사업에 대한 최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축산물종합정보시스템 보완 구축사업은 홈페이지 이용 고객의 편의성 제고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혁신사업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WEB서버 신규 도입, DBMS 교체 및 변환, 연동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E-메일 마케팅 서버 및 솔루션 도입 등이다.

특히 E-메일 마케팅 서버 도입으로 11월부터 축산관련자에게 등급판정결과, 등급정보지, 뉴스레터 등 다양한 정보가 E-메일을 통하여 신속하게 제공될 예정이며, E-메일을 이용한 등급판정결과 제공은 판정 당일 Feed Back은 물론이고 월별, 반기별, 연간 분석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번 시스템 보완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은 등급판정결과의 다양한 분석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급판정소에서는 대용량 DB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사)대한양계협회

신임 이종길 전무서리 영입



(사)대한양계협회(회장·최준구)는 그동안 공석이던 전무 임용건에 대해 지난 10월 27일 긴급 회장단(위원장) 회의에서 신임 이종길 전무를 영입

(신임)키로 결정했다.

11월 1일부로 임용된 이종길 신임 전무서리는 1965년 농협중앙회에 입사, 1981년 축협중앙회로 전입해 20년 이상 중앙회에 재직하며 기획조정실장과 상호금융공제부장, 경북도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농협중앙회

'목우촌 닭고기' 소비자 웰빙 지수 1위 기업으로 선정

지난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63빌딩에서 열린 2005년도 소비자 웰빙 지수(Korea Well-Being Consumer Index) 1위 기업 시상식에서 농협 '목우촌 닭고기'가 닭고기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소비자 웰빙지수 1위 기업 선정은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시도지역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규모를 고려한 비례할당추출법으로 75,200표본의 소비자 그룹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및 온라인 패널조사 결과를 통해 엄격하게 선정되었다.

이번 1위 기업 수상으로 그동안 안전하고 바른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해온 목우촌 닭고기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수성이 한번 더 인정받게 되었다.

농협 계육가공분사 박치봉 사장은 "이번 소비자 웰빙 지수 1위 기업에 선정된 것은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공급에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소비자들의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위생 및 품질 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농가와 소비자를 잇는 상생의 사업전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가금질병연구회

추계 심포지움 개최

2005년도 추계 가금질병연구회 학술세미나가 천안 소재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0

월 12일에 열렸다.

이번 연구회 세미나에서는 국내 유행 뉴캐슬

병의 유전학적 특성 및 효과적인 예방대책(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윤정 박사), 마이코플라즈마 병 예방법 및 최근 연구동향(조지아주립대 Kleven교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 예방접종 어떻게 할 것인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권용국 박사) 등의 내용이 발표되었다.

심포지움이 끝난 후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단을 선출했다.

- 회장 : 나만채(한국가금연구소)
- 부회장 : 송치용(보람동물병원)
- 총무 : 권용국(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이봉덕)는 2005년도 제22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오는 11월 18일 서

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동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C

“회원사의 소식을 보내주세요”

「월간 닭고기」에서는 ‘회원사 소식’ ‘업계소식’ ‘회원사 탐방’ ‘회원사 제품소개’ 등의 코너를 통해 본회 회원사의 소식이나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사 홍보를 원하시는 회원사(준회원사, 농가회원 포함)께서는 단신이나 회사소개 내용을 매달 20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또 육계 및 계육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서도 홍보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내용을 작성하시어 매달 20일까지 보내주시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 소식 보내실 곳

- 취재문의 : (031)707-5722~4
- 팩 스 : (031)707-5725
- E-mail : hj@chicken.or.kr